

## ■ 권역별 음악시장 규모(2006~2015)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5 CAGR(%)
북미	12,461	11,246	9,242	8,058	7,093	6,896	6,788	6,757	6,802	6,900	-0.6
EMEA	11,541	10,292	9,372	8,965	8,548	8,274	8,121	8,138	8,258	8,453	-0.2
아시아	8,531	8,517	8,242	7,673	7,135	6,295	6,211	6,121	6,099	6,123	-3.0
남미	959	829	730	697	664	646	635	637	640	651	-0.4
합계	33,492	30,884	27,586	25,393	23,440	22,111	21,755	21,653	21,799	22,127	-1.1

\*EMEA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약자

※출처: 2011 해외 콘텐츠시장조사(2011) 재구성

- 2010년 기준 전 세계 음악시장 규모는 234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2011~2015년까지 연평균 -1.1%의 하락세가 예상되어 2015년에는 221억 2,700만 달러 시장규모가 전망됨
- 권역별 음악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EMEA가 85억 4,800만 달러(36.5%), 아시아 71억 3,500만 달러(30.4%), 북미지역 70억 9,300만 달러(30.3%), 남미 6억 6,400만 달러(2.8%)의 순으로 나타남
- 전 세계 음악시장이 다른 분야에 비해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오프라인 음반(LP, CD, DVD 등) 판매 급감이 디지털 음반(Single Track, Digital Album, Synchronization 등) 판매 상승세에 따른 전체 시장 상쇄가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